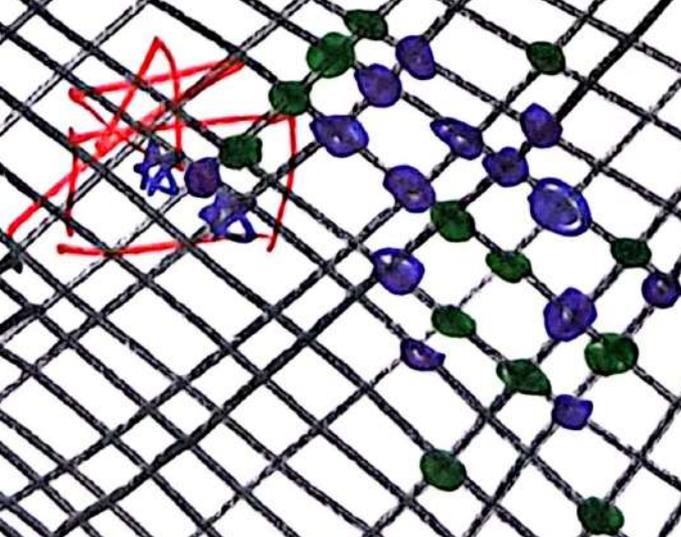


NAVER

GIVE UP ▼

GIVE DOWN
GIVE LEFT
GIVE RIGHT
GIVE YOU
GIVE ME



아직 떠나지 못한 (?)이여
무엇이 그토록 아쉬워
오늘에 예술처럼 남아있는가

지난것에 갇는 미련은
내일을 주지 않지만
그 순간의 자태는
가을 초저녁 구름

? => HINT!

기재서 그토록 아름다운 일말자

?), 저택에 걸린 게으름라
?), 밤에 숨고싶었던 구름
?), (?), (?), 이여 그대에게

외돌리말고 나아가
나큰 자꾸를 돌로
아침으로 오는 따스함엔
감은 눈으로 그대를 반거리



*신우연 ? = 아이

김재원 ? = 광

장인혁 ? = 빛

KEITA = 기억

→
RUSSE ?

Russ = ~~light~~ forgiveness.

빛

159 → 죄인

HINT ()

김재우

파도에게 인사하러
손을 흔들면
곧 부서지는 너와 함께
작별인사가 되고

찰나에 준 정마저
백사에 섞어 가져갈 즈음
다음 파도가 너를 덮치면
떨어지는 바람에도 마음이 이어

아직 내려놓지 못한 손을
새로운 파도가
인사로 오해할 때면
넌 어디쯤 있을까

망망대해 어딘가에
고요하지만 외롭지 않은
즐겁지만 아늑한
그런곳에 있기를

11
11

Handwritten text in a vertical column, possibly a list or notes, written in a cursive or shorthand style. The text is oriented vertically and appears to be a list of items or a set of notes.

